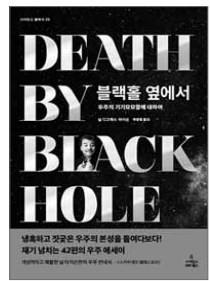


# 인간의 상상력도 닿지 못하는 우주의 신비

## 블랙홀 옆에서

닐 디그레스 타이슨 지음, 박병철 옮김



누구나 어린 시절 밤하늘을 바라보며 광활한 우주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사는 은하계는 얼마나 크며 지구와 같은 행성이 존재할까?

우주라는 이미지가 주는 환상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무언가 희망을 주는 것 같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래를 예측하던 선사시대부터 천체 물리학이 발달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주에 대해 갖는 낭만적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우주는 낭만이 환상과는 거리가 먼 공간이다. 하루에 한 번꼴로 초대형 폭발이 일어나고 무엇이든 빨아들여 분해해버리는 블랙홀이 존재한다. 그뿐인가. 태양풍은 매초마다 수백만 톤의 하전 입자를 배어내기도 한다. 한마디로 우주 공간은 인간의 몸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신비한 시간들로 가득하다.

기묘하고 냉혹한 우주를 안내하는 책이 발견됐다.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이자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 펴낸 '블랙홀 옆에서'는 우주적 상상력으로 가득 찬 과학 에세이다. 미국 우주 산업과 탐사 계획을 수립하는



우주는 무엇이든 빨아들여 분해해버리는 블랙홀 등 신비한 현상들로 가득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위원회에 참여하고 2017년 스티븐 호킹 매달 등을 수상한 저자는 이번 책에서 '우주의 본성'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저자는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잡지 '자연사'에 연재했던 에세이를 엮은 것으로, 개성적인 42편의 에세이가 수록돼 있다.

"이 우주는 사물이나 현상의 집합체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각본에 따라 수많은 배우가 연극을 공연하고 있는 방대한 무대인 것 같다. 그래서 우주에 관한 책을 집필할 때에는 독자들을 무대 뒤편으로 안내하여 세트의 디자인과 각본 등을 미리 보여 주면서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를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안내하는 기분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에는 우주를 탐구해온 인간의 역사와 그 역사가 스며들어 전승되고 있는 인

간의 문화에 초점을 둔다. 인류는 우주를 인간만의 것이라고 믿고 싶어 했지만 사실 우주는 그 믿음을 배반해왔다.

책은 모두 7부로 구성돼 있다. 에세이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완결적으로 드러낸다.

1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었던 과학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관측 도구와 위치, 입장에 따라 우주 만물은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2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반물질'은 지구 바깥의 태양계의 근원, 행성과 혜성 발견의 역사를 다룬다. 천체 물리학적 개념을 토대로 낯선 우주에 인간이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소개한다.

3부 '자연의 작동 방식'과 4부 '생명의 의미'에서는 각각 우주의 다채로운 모습,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배경을 은

하의 탄생에서부터 조명한다.

다소 이색적인 주제의 5부 '우주에서 죽음을 맞는다'는 지구를 위협하는 우주적 재앙을 SF적 상상력으로 풀어낸다.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충돌 등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재앙을 다룬다.

6부 '과학과 문화'는 과학적 사고와 가치관이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 등을 짚어내며 7부 '과학과 종교'는 인간이 의지하는 종교와 그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과학의 관계에 주목한다.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종교와 과학 모두 한 인간으로써 알 수 없는 것에 의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사이언스북스·2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1년간 바다 건너 편지들, 우정을 주고받다

##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 자신의 안부를 물었다

김민아·윤지영 지음

자신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주고 받은 '편지'를 읽는 건 조금은 어색한 일이다. 하지만 그 편지에 담긴 이야기가 얼마쯤은 나에게 들려주는 말갈다는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책과 영화와 음악 이야기, 그리고 늘 꿈꾸던 여행의 이야기가 함께 실려 있다면 잠시 그들의 '편지'를 함께 읽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안부를 물었다'는 두 여성이 1년간 주고받은 편지를 묶은 책이다.

'지영아!', '민아!'로 시작되는 편지의 주인공은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일하는 소설가 김민아와 대학에서 한국 현대사를 가르치는 시인 윤지영이다. 15년 전 대학원에서 만나 우정을 이어온 두 사람은 우연찮게도 2016년 각각 스웨덴과 아일랜드로 떠나게 된다. 김민아는 스웨덴에 머물며 북유럽의 삶의 양식을 경험하고 윤지영은 아일랜드를 거쳐 모로

코, 터키,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떠돌며 세상을 탐험했다.

이국적인 풍경과 새로운 삶의 경험은 흥미로운 것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고독과 향수가 밀려오기도 했다. 그 때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준 게 '편지'였다.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정말 오랜만에 봐도 바로 어제 본듯 마음이 통하는 이들이 있다. 두 사람은 바로 그런 관계였고 책과 음악과 영화를 좋아하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사람들에 관심이 많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도 흥미롭게 일친다.

한 사람은 핀란드가 배경인 오기나미 나오키 감독의 '카모메 식당'을 핀란드에서

멀지 않은 스웨덴에서 다시 보면서 '인생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살려고 한다'는 대사를 다시 곱씹어 보고 편지를 쓴다.

한 사람은 5분만 걸으면 사하라 사막에 들어서는 모로코의 작은 마을에 수개월 동안 머물며 느꼈던 감정과 영화 '스모크'의 하비 키에틀처럼 아일랜드 시골마을의 운하를 '같은 시간대'에 찍으며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삶의 모습을 편지에 담는다.

또 복지 제도의 천국인 스웨덴이 처한 이주민 정책의 현주소와 고민, 세계에 만연한 테러의 공포 등에 대한 이야기와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쓰는 편지', 영화 '위대한 개츠비'와 노장 에릭 클랩튼의 '아이 스틸 두' 등 영화, 책, 음악에 대한 다채로운 글도 마음에 남는다. 〈콜레마·1만6800원〉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혁명="정치기본권도 없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라니요?" 이 책은 학교개혁을 위한 과제와 이슈, 방향 등을 살펴본 책이다. 1부 학교개혁의 국내외 동향과 학교혁명의 방향과 2부 학교혁명 실천을 위한 과제들을 통해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실천 과제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교육 환경과 학교 모습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살림터·2만1000원〉

▲혼자가 좋다=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홀로 있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누리도록 돕는, 세상의 모든 '혼자'를 위한 본격 안내서이다. 혼자 산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 현실적 어려움과 장단점, 혼자 있는 시간의 활용법 등 우리가 몰랐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혼자 사는 즐거움과 혼자 있는 시간의 여러 측면을 조망함으로써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알려준다. 결혼할지 말지 고민하거나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신중한 조언을 들려준다.

〈심플라이프·1만5000원〉

▲다시, 독립의 기억을 걷다="만주·연해주 독립운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꼭 만나야 할 그 땅, 그 사람들을 찾아서." 시대와 소통하는 만주 연해주 항일 역사 기행으로, 만주·연해주 독립운동의 생생함을 고스란히 담았다. 고구려와 발해의 찬란했던 유적부터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의 가슴 아픈 흔적까지, 만주와 연해주를 10년 넘게 답사한 저자의 꼼꼼한 기록과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돋보이는 책이다. 〈살림터·1만6000원〉

▲아날로그 보이=책상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구닥다리 휴대폰이 어느 날 문득 눈을 뜬다. 자신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성격 좋은 바가지. "넌 뭐냐?" "글쎄 나는 누구일까?" 전자제품들의 성지 드러나온듯을 찾아 떠난 낡은 휴대폰의 좌충우돌 모험담을 그린 이 책은 소외된 사물들이 서로 힘을 합쳐 난관을 극복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한국형 그래픽노블이다. 〈스윙밴드·1만28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미세먼지 해결사 슈퍼피시=미세먼지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진 요즘 이 책의 주인공 아이는 빛나는 상상력으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실현하며 공기도 마음도 정화해 준다. 도로 한복판에 나온 슈퍼피시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도시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닮았기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책 속 깨끗하고 순수한 주인공 아이와 검은 도시로 뛰어든 슈퍼피시의 이야기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결국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씨드북·1만2000원〉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사파리·9500원〉

▲꿀꺽!=노랑 애벌레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했던 시간과 우정 모두를 꿀꺽 삼켜 버린다. 곧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영영 울지만, 이미 친구는 사라지고 없다. 노랑 애벌레는 다시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건 쉽지 않다. 이 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를 편견 없이 바라볼 때,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배려할 때 비로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울림어린이·1만2000원〉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면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4시공후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H.P 010-6603-0405

독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